

초록

배경: 견관절의 전방 불안정 환자에서 관절와 순 병변의 봉합 나사를 이용한 관절경적 복원술의 수술 결과를 전향적으로 분석 하였다.

방법: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발성 전방 불안정인 견관절에 대해 봉합 비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하여 관절경적 Bankart 복원술을 시행하였던 167례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. 수술 당시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25세(15-46세)였으며, 성별은 남자 149례, 여자 18례였다. 평균 추시 관찰 기간은 평균 44개월(24-75개월)이었고, 견관절의 기능적 평가는 3가지의 객관적 측정방법(Rowe, UCLA, 및 ASES 점수)과 두 가지 주관적인 방법(pain and function visual analog scale)을 사용하였다. 재발율, 운동 범위와 수술 후 재발을 유발시키는 위험 인자들도 알아 보고자 하였다.

결과: 모든 환자의 견관절 점수는 향상 되었으며(t-test, $p < 0.05$), Rowe 기준에 따라, 우수 130례(78%), 양호 29례(17%), 보통 6례(4%) 그리고 불량 2례(2%)였다. 전체적으로 수술 후 불안정의 재발은 4%(탈구 1례, 아탈구 2례, 양성 전방 불안정 4례)였다. 수술 후 재발은 30% 이상의 관절와 결손과 관계가 있었다(Gehan's test, $p > 0.0001$). 수술 후 불안정이 재발된 환자에서 재발의 빈도는 빈번하지는 않았고, 견관절 기능은 수술 전 활동력과 관련이 있었다(Fisher's Exact test, $p = 0.29$). 관절경적 Bankart 재수술 하였던 4례 중 3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. 환자들의 활동력은 수술 후 강화되었고(t-test, $p < 0.001$), 152례(91%)에서 수술 전 활동력의 90% 이상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. 외회전의 평균 소실은 $2.0 \pm 4.0^\circ$ 였다.

결론: 관절경적 복원술의 결과에 대한 이전의 보고와는 대조적으로, 봉합 나사를 사용한 관절경 관절와 순의 복원술은 재발률, 활동량과 관절 운동 범위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.